과제문②

염소 두 마리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흰 염소가 둑 길을 따라　가면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어라, 여기에 통나무 다리가 있네. 와, 다리 밑을 흐르는 냇물이 무척 깊구나. 저 건너편에는 어떤 맛있는 풀이 있을까? 궁금한데? 그래, 조금 무섭지만 한번 가 봐야겠다.’

흰 염소는 통나무로 된 외나무다리를 뚜벅뚜벅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맞은편에서도 검은 염소 한 마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흰 염소와 검은 염소는 외나무　다리 한가운데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외나무다리　는 폭이 너무 좁아 서로 비켜 갈 수 없었습니다.

“저리 비켜. 내가 먼저 올라왔어.”

“아냐, 내가 먼저 올라왔어. 그러니까 네가 비켜.”

고집이 센 흰 염소와 검은 염소는 서로 비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흰 염소와 검은 염소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뿔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밀고 밀리며 싸웠습니다.

“엇, 어어어 앗!”

흰 염소와 검은 염소는 그만 다리에서 미끄러져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냥 내가 먼저 비켜 줄 걸….’

‘아, 내가 먼저 양보했으면 될 걸….’

흰 염소와 검은 염소는 물에서 허우적 거리며 후회하였습니다.

課題文②

2匹のヤギ

 涼しい風がそよそよ吹くある日のことでした。白いヤギが土手沿いを歩きながら草をむしり食べていました。

「おや、ここに丸太橋があるではないか。わぁ、橋の下を流れている川はとても深いのだな。あの向こう側にはどんな美味しい草があるのかな。気になるな。よし、少し怖いけど一度行ってみなくちゃ。」

白いヤギは丸太でできた一本橋をこつこつ渡り始めました。

「あ！」

反対側からも黒いヤギ1匹が一本橋を渡って来ていました。とうとう白いヤギと黒いヤギは一本橋の真ん中でぴたっと出くわしました。一本橋は幅がとても狭くお互いによけて行く事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あっちへどけ。私が先に登ってきた。」

「いいや、私が先に登ってきた。だからお前がどけ。」

ガンコな白いヤギと黒いヤギは互いにどこうとしませんでした。結局白いヤギと黒いヤギは一本橋の上で角を突き合わせてケンカをし始めました。しばらくの間、互いに押し合いケンカしました。

「おっ、おおおあっ！」

白いヤギと黒いヤギはその時、橋からすべって水にドブンと落ちてしまいました。

「あぁ、そのまま私が先にどいてあげれば…。」

「あぁ、私が先にゆずれば良かったものを…。」

白いヤギと黒いヤギは水の中でしきりにもがきながら後悔しました。